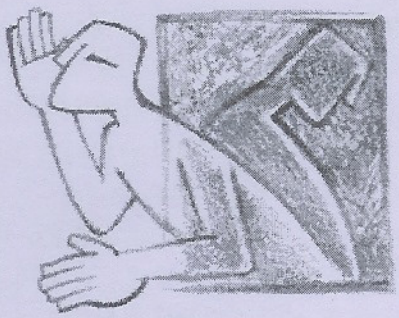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대림 제 1주일
제28권 1호 (가해) 2007·12·2

[묵상]



그분의 시간

바람 불고 비와 눈이 섞여 내리고

기쁨과 슬픔으로 운명을 걸머지고

모두가 삶의 길을 걸어가지만

어떤 이는 모르고 어떤 이는 깨어나

그분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 한광구 요셉 · 시인 / 최창원 니콜라오 · 화가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962-8414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미사

수요일	평일미사	오후 7:30
목요일	평일미사	오후 7:30
금요일	평일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 일	아침미사 주일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3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시간 (첫목요일)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 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떼제기도모임(2째주 토요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 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 무 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미사 지향

토 요 특전미사	(연)정선결 모니카, 김종돈 스테파노 이규형 곤잘레스
	(생)최석원 안드레아와 태훈 아오스딩 김복환, 조지 가보라
주 일 낮 미사	(연)이현호 요한, 이영자 마리아, 이은완 야고보 정선결 모니카, 최복덕 마리아, 박정이, 김재원, 현간난 노요셉과 김애자 데레사, 노가리스도와 노디닥꼬
	(생)박재훈 제임스와 박토니 가정, 이종민 요셉 김행선 율리아나 가정, 이종원 베드로와 아네스 가정 윤희동 안토니오와 세라피나 가정, 엄은섭과 도로테아 가정 오세원 아타나시오와 루시아 가정, 박진숙 엘리사벳 토런스 남4반 가족들, 송호민과 김나영 가정 현석주 아오스딩과 영화 베로니카 가정, 권순봉 요안나 홍석인 체칠리아, 구마리아네 수녀님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2,1-5
화 답 송	⊙주님의 집에 기꺼이 가리이다. <전례성가 59, 대림 제1 주일 가해> ○주님의 집에 가자할 제 나는 몹시 기뻤노라. 예루살렘아 네 성문에 우리 발은 이미 서 있노라.⊙ ○지파들이, 주님의 지파들이 저기 올라가도다. 이스라엘 법을 따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러. 저기에는 재판하는 자리가 있고, 다윗 가문 옥좌가 놓여 있도다.⊙ ○예루살렘 위하여 평화를 빌어주라. 너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평화 있기를! 너의 성 그 안에 평화가 있기를! 너의 궁 그 안에 평화가 있기를!⊙ ○내 형제 벗들 위하여 말하노라, 평화가 너와 함께 있기를! 우리 주 하느님의 집을 위하여, 너의 모든 행복을 나는 비노라.⊙	
제 2독서	로마서(Romans)	13,11-14ㄱ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자애를 보이시고, 주님의 구원을 베푸소서.⊙	
복 음	마태오(St.Matthew)	24,37-44
영성체송	주님께서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그 열매를 내어 주리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95	124
봉헌	259	178,197
성체	302	307,298
파견	227	123

간추린 가톨릭 교리

7.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계속)

▶하느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인의 소명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느님의 나라는 내세(來世)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나라는 이미 이 세상에서부터 실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인 겨자씨가 자라면 새들이 둥지를 틀 만큼 큰 나무가 되고, 적은 양의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온통 부풀리듯이, 하느님 나라 역시 지금은 미약하게 보이지만, 이윽고 세상 전체로 퍼져 나갈 것이다.(마태 13,31-33 참조)

하느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를 실현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바라셨고,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마태 5,13-16)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악에 물들어 썩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하여야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드러냄으로써 어둠을 밝혀 주는 빛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의 정신으로 무장되어야 한다.

우리가 하느님의 정의를 실천하면서 하느님 나라의 참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 줄 때, 세상 사람들도 하느님을 참으로 알고 하느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 데 동참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사랑과 진리,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는 것을 말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심으로써 시작된 하느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실현하는 일에 협력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나의 좌우명으로 삼고 싶은 구절을 찾아보고, 그 말씀을 자기 일상생활의 지표로 삼아 기쁘고 복된 삶을 누리도록 노력하자. ◆(계속 - CBCK 제공)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are yours,
now and for ever. Amen.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신학생 시절 농촌 봉사활동을 갔을 때 시골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들려 준 슬픈 이야기이다. 그 날은 비가 많이 와서 밖에서 봉사활동을 못했다. 그래서 그 할머니 집의 마루에 모여 담소를 나누었다. 대학생이던 그 할머니의 외아들은 6·25전쟁이 터지자 학도병으로 전쟁터로 나갔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지만 할머니의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얼마 후 그 할머니의 아들은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나 그 할머니는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니, 죽었다고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지 30여 년이 지났는데도 할머니는 밤에 사립문을 잠그지 않고 잠을 잔다고 하셨다. 그 할머니는 이야기중에 머리에 쓰셨던 수건으로 눈물을 훔치셨다.

지금 생각하면 그 할머니는 아들이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아셨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마음 속에서 아들을 지울 순 없었다. 그 할머니의 기다림이 다른 사람에게는 무의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홀로 사는 그분에게 기다림은 삶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이제는 그 할머니도 그렇게 그리워하던 아들을 하늘나라에서 만나시지 않았을까?

전례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간인 오늘, 우리는 "깨어 준비하라"는 권고를 듣는다. 대림시기는 구세주이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기다리는 때이다. 회개와 속죄로 구세주를 맞기 위해 준비하는 시기로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우선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는 성탄 대축일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또한 종말에 있을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을 기다리는 시기이다. 우리의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 가운데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 하느님의 시간은 구원의 시간이며 완성의 시간이다.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 온갖 무질서와 애착에 빠져 현실적인 행복만을 추구한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항상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산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언제 오실 지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마태 24,42.44). 이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삶이다. 따라서 "늘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는 말씀은 죽음과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에게 거룩하고 위대한 기다림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세상의 것을 기다리지 않고 영원한 하느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가 바뀌고 변화하고 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래서인지 "기다림은 욕망이 아니라, 무엇이든 받아들이기 위한 마음의 준비"라고 했던 앙드레 지드의 말이 더 마음에 와 닿는다.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이번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강정현 시몬	신덕례 데레사	최숙 클라라
제1독서자	최태훈 아오스딩	최영신 프란치스코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서용숙 에스델	권순길 세실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2,3반

다음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지영 크리스티나	최진수 에우세비오	엄영숙 마리아
제1독서자	이성연 크리스티나	박진수 스테파노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이화영 잔다르크	박혜경 레나타	박희자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1,3반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매달 첫 주일인 오늘 자선헌금이 없는 대신, 다음 주일(9일)에 LA 대교구가 매년 모금하는 수도자 은퇴기금을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

◈ 가정성화와 레지오 재창단을 위한 묵주기도 봉헌

- 봉헌하신 묵주기도는 게시판에 기록해 주십시오.

지난 주간 합계: 1,604단 총 합계: 223,953단

✝ 대림 시기 ✝

오늘은 가톨릭 교회력으로 한 해의 전례주기가 시작되는 대림 제1 주일입니다. 앞으로 4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을 준비하고, 재림할 구세주를 기다립니다. 이 시기는 또한 회개의 시기입니다. 주님께로 향하는 회개 없이는 그분의 오심을 깨어 기다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삶을 정비하고 새롭게 주님께로 향하여 구세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대림 시기의 영성입니다.

◈ 병자 영성체 : 12월 6일(목) 오전 9시30분부터

◈ 성시간 : 12월 6일(목) 저녁미사와 함께 진행 : 토런스 서구역

◈ 성모 신심 미사 : 12월 8일(토) 오전 8시30분
(원죄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 백삼위 대림 합동 판공성사 : 12월 19일(수)

- 참회예절 : 오후 7시
- 고백성사 : 오후 7시30분부터

◈ 평일미사 시간 임시 변경

남가주 한인성당 대림판공 시작으로 본당의 12월 12일(수), 13일(목), 19일(수), 20일(목)의 저녁 미사가 아침미사(8시30분)로 변경됩니다.

◈ 레지오 마리애 주회를시작했습니다.

- 순교자의 모후 Pr. : 수요일 오후 8시(자매)
- 바다의 별 Pr. : 수요일 오후 8시(형제)

❀ 유아세례 축하합니다 ❀

지난 11월 24일 유아세례를 받은 어린이들을 축하합시다.

♡ 박규하 니콜라오 ♡ 주혜나 가브리엘라 ♡ 송재민 다니엘

◈ 구역장/반장 회의

12월 첫주일 구역장/반장 회의가 4일(화)로 변경됐습니다. 송년모임을 겸합니다.

- 때,곳 : 12월4일(화) 오후 7시, 성당 강당

◈ 목요 교리반 받아들이는 예식

- 목요 교리반 예비자들의 세례성사(12월23일)를 앞두고 받아들이는 예식이 12월6일(목) 오후 7시30분 저녁미사와 함께 있습니다. 대부모님들은 꼭 참석해주세요.

◈ 주말 교환사목과 대림 특강

본당 신부님이 성 마이클 한인성당과 주말교환 사목을 하기 위해 대림 제2 주일(8일,9일)에 샌프란시스코에 가십니다. 대신 마이클 성당의 박정배 주임신부님이 우리 본당에 오셔서 미사 집전과 대림특강을 해주십니다.(토요특전 미사 포함)

◈ Homeless People 돕기 3차 행사 준비 중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여러 형제자매님들의 수고로 홈리스 피플 돕기 2차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 12월 9일(둘째주일) 3차행사를 앞두고 지속적인 관심 주세요. ☎ 310-283-5879 박흥룡 요셉(사회복지분과위원장)

◈ 주일학교 성탄맞이 행사

- 때, 곳 : 12월15일(토) 오후3시~5시, 성전
  발표에 앞서 리허설이 당일 오후1시부터 있음.
- 성탄의 기쁨을 부모님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자녀들이 열성껏 준비한 프로그램을 기대해주세요. 크리스마스 바이블 퀴즈도 함께 진행됩니다.

◈ 겨울방학

- 12월23일(주일)~1월22일(주일)까지
  (종강(16일) 개강(1월27일)

◈ 주일 학생미사는 매주일 오전 9시30분에 계속 있습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숙경 김대우 김양금 김일선 김정웅 김철민 김태호 모은기 문충한 민경근 박기돈 박인식 박정자 서희준 석인성 성지용 엄세종 엄혜은 오세원 오수인 오호순 우영주 이경태 이명자 이문종 이병우 이석제 이일길 정상봉 정정현 주태청 최귀환 하정화 한창주 홍석철 황인종 크리스리 합계 : $5,570
성전헌금	강숙경 김대우 김양금 김일선 김철민 김태호 모은기 문충한 민경근 박인식 박정자 서희준 석인성 성지용 엄세종 엄혜은 오세원 오수인 오호순 우영주 이경태 이명자 이문종 이병우 이석제 이일길 정상봉 정정현 주태청 최귀환 하정화 한창주 홍석철 황인종 합계 : $3,755
미사헌금 : $2,979	

공지사항

각 단체 송년모임

- 자모회 : 12/7(금) 오후 6시 30분, 성당 강당
  주일학교 학부모님들 많이 참석해주세요.
  ☎ 371-8636 정정현 베네딕다 자모회장
- 성모회 : 12/11(화) 오후 5시, 홍콩 가든(21718 S. Vermont Av. Torrance) 45~65세 자매님들 누구나 환영. ☎ 920-1119 성모회장 임에메리타
- 토런스 2/4반 : 12/15(토) 오후 7시, 성당 강당
  ☎ 374-1572 이명순 크리스티나 2반장
- 원서부부회 : 12/21(금) 오후 6시30분, 성당 강당
  ☎ 213-446-8234 김병록 요셉 회장

◈ 중고 휴대폰 수집

대건회가 환경보호 및 주일학교 기금마련을 위해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둔 중고 휴대폰을 모읍니다.
☎408-3175(천광락 야고보) ☎213-435-1600(김우용 시몬)

◈ 미주가톨릭 다이제스트 재 구독신청 받습니다.

- 지난 달초 미주 가톨릭 다이제스트를 구독신청한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다시 신청해주기 바랍니다.
  다이제스트사 직접 신청 전화 ☎ 201-289-9939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12월 2일 : 사회복지 분과 (비프&치킨 테리야끼 $3)
- 12월 9일 : 하버/카슨 2반 (국밥 $3)

남가주 소식

◈ 가톨릭방송 주관 풍선아트 무료 강좌

- 때 : 12월27일(목)
- 주제 : 기초강좌와 뉴이어(새해)
- 곳 : 성 아그네스 성당 한인회관
- 신청: 미주 가톨릭방송 ☎213-385-5564

◈ 꽃동네 '중년기 삶의 변화를 위한 피정'

- 때 : 2008년 1월 11일(금) 오후 3시30분~
  13일(일) 오후 1시(2박3일)
- 대상 : 40~50대 여성(선착순 50명)
- 지도 : 김유철 필립보 신부(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학원장)
- 피정비 : $130
- 준비물: 침낭, 세면도구, 두꺼운옷, 편한 신발
- 신청: 테메큘라 꽃동네 피정의 집 ☎ 951-302-3400
  37885 Hwy. 79 S. Temecula, CA 92592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반장 회의	12월4일(화) 오후 7시

다음 주 단체 모임

각 단체 모임의 날	오전 9시, 오후 1시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차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장	권병연 리디아 (310)938-3255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김양금 안나 518-3041	김양금 안나 518-3041 12/7(금) 오후 7시 30분
	2	신중철 아브라함 310-619-4343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3	한길선례 스콜라스티카 782-1025	한길선례 스콜라스티카 782-1025 12/14(금) 오후7시30분
	4	정종미 클라라 373-1237	정종미 클라라 373-1237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틸리아 782-8549	1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김숙희 오틸리아 782-8549 12/7(금) 오후 7시
	2	이명순크리스티나 374-1572	이명순 크리스티나 374-1572 12/21(금) 오후 7시, 성당
	3	김미성 미리암 798-6540	김미성 미리암 798-6540 12/4(화) 오전 11시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써니 클라라 612-8840	1	신성주 엘리사벳 891-1837	아석진 가브리엘 326-5867 12/14(금) 오후 7시30분
	2	임진희 한나 720-7898	임진희 한나 720-7898 12/4(금) 오후 6시
	3	임형미 사비나 213-258-7797	임형미 사비나 325-6810 12/15(토) 오후 5시30분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2	박정희 마리아 715-2609	권오상 바오로 257-8416 12/7(금) 오후 7시
	3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2	김희복 아네스 326-2283	최기남 야고보 891-1527 12/8(토) 오후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1794	1	홍정란 클라라 544-6290	홍정란 클라라 544-6290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김숙희 유소사 544-4807 12/7(금) 오후 7시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4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새로운 전례주년의 첫날(1st Sunday of Advent)

오늘 대림 제1주일과 함께 교회는 새로운 한해의 전례주년을 시작한다. 전례주년의 기본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과 공생활,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한 하느님의 인류구원역사를 '오늘'(today), 그리고 '여기'(here)에 재현하고 기념하는데 있다. 가톨릭교회는 하느님의 인류에 대한 구원사건의 신비를 1년의 전례주년 안에서 시기별로 나누어 기념함으로써 구원사건의 신비를 재현하고 이에 신자들의 삶을 질서 지우고자 한다. 전례주년은 특히 시간(時間)과 장소(場所)의 성화(聖化)를 강조한다. 전례주년은 하느님께서 전 인류와 전 역사에 베푸신 구원의 신비를 1년이라는 주기 속에서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사건으로 체험함으로써, 신자들이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찬미와 기쁨으로 아버지 하느님 앞에 조금씩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신자들은 이러한 전례주년의 신비 속에서 매번 그 사건(구원사건+성인축일)의 의미를 충분히 묵상하여 전례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성화하여 이 세상과 인간의 구원을 위한 참다운 '성사(聖事)'로서의 사도직을 충실히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전례주년의 중심은 예수님의 성탄과 부활사건이다. 그래서 주님성탄대축일과 주님부활대축일이 전례주년의 두 기둥이 된다. 교회는 12월 25일 성탄대축일을 준비하기 위해 4주간의 대림시기를 지내며, 그 다음 주님세례축일까지 성탄시기를 보낸다. 주님세례축일 다음 월요일부터 연중시기를 지내는데, 이는 대략 연중 제5~7주간으로 중단된다. 그 이유는 주님부활대축일을 준비하는 사순시기 때문이다. 부활대축일은 매년 "춘분(3월21일)이 지나 만월(음력 15일) 다음에 오는 첫 주일"로 정해진다. 당해의 부활대축일이 정해지면, 거꾸로 46일째 되는 날이 사순시기(총40일)의 시작인 '재의 수요일'이다. 이 기간 중 6번의 주일은 사순시기에서 제외된다. 주님부활대축일부터 부활시기가 시작되는데, 이는 주님승천대축일과 성령강림대축일까지 50일간 계속된다. 그 다음 월요일부터 사순시기로 말미암아 중단되었던 연중시기가 계속된다. 우리는 편리상 사순시기 이전의 연중시기를 연중시기(1), 부활시기 이후의 연중시기를 연중시기(2) 라고 한다. 연중시기(2)는 한해 전례주년의 마지막인 연중 제34주간으로 끝난다.

따라서 전례주년은 크게 대림시기-성탄시기-연중시기(1)-사순시기-성주간-부활시기-연중시기(2)로 구분되는 것이다. 전례주년의 모든 시기는 통상 그 날의 사건과 의미를 밝히는 특별전례와 함께 성체성사, 즉 미사로 기념된다. 미사는 '주일미사'와 '평일미사'로 구분되며, 그 미사의 중요성에 따라 '대축일미사', '축일미사', 또는 '기념미사'로 불리며, 모든 미사는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로 구성된다. 특히 말씀전례를 다양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교회는 주일을 3년 주기[가해-나해-다해]로 정하였고, 평일을 2년 주기[홀수해-짝수해]로 정하였다. 이는 말씀전례의 독서와 복음을 지정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모든 주일미사에는 3년을 주기로 같은 독서와 복음이 봉독되며, 가해는 마태오복음을, 나해는 마르코복음을, 다해는 루가복음을, 부활시기에는 요한복음을 위주로 선택된다. 평일미사의 독서는 홀수해와 짝수해의 원칙을 따라 신·구약성경에서, 복음은 매년 같은 복음으로 봉독된다.

그러므로 오늘 대림 제1주일을 시작으로 우리는 2008년 '가해'와 '짝수해'의 전례주년을 시작한 셈이다. 따라서 올해의 전례주년동안 우리는 부활시기와 특별한 대축일을 제외한 모든 주일미사에서 마태오복음을 묵상한다. 새로운 전례주년은 매번 기다림과 준비로 특성화된 대림시기로 시작된다. 대림(待臨)은 말 그대로 '올 것에 대한 준비'를 말하며, 대림시기는 그 준비기간이다. 교회가 말하는 대림은 이중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벌써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은총의 시기이다.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면서도 종말에 재림하시는 인자 앞에 누구나 철저히 홀로 서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늘 깨어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은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각자 스스로가 해야 하는 일이다. 대림의 의미를 잘 깨닫고 정성껏 이 시기를 지내도록 노력하자.

◆박상대 마르코 신부